



유시영에게 엄벌을!

노조파괴 6년만에 법적 처벌 심판대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곧 내려진다. 검찰은 11월 4일 열리는 재판에서 유시영 회장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2011년 노조파괴가 시작되고 6년만의 일이다. 노조파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생각하면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더군다나 유성기업은 아직도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우기며 현장에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법원은 마지막 양심 지켜야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일부터 만만치 않았다. 노동부와 검찰이 계속해서 사업주를 감싸는 바람에 유시영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끈질긴 투쟁으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고 그 재판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사법기관이 범죄자를 비호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투쟁으로 법정에 세운 만큼, 법원은 마지막 양심을 갖

고 판결해야 한다.

노조탄압이 ‘노조파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노조파괴가 벌어졌고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만들었다. 그러나 유성지회의 투쟁으로 노조파괴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고, 또 다른 노조파괴를 막아낼 수도 있었다. 최근엔 노조파괴를 자행하다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제 노조파괴의 원조, 노조파괴의 백화점 유성기업을 엄벌해야 할 때이다.

유시영 회장 썩은 동아줄 놓을 때

그동안 정권과 사법기관의 비호를 제대로 받아왔던 유시영 회장은 이제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동안 법원이 사업주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온 걸 믿고 안심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노조파괴 범죄는 이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가 됐다.

한광호 열사 노조파괴로 인한 산재사망 인정

한광호 열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질병판정위원회는 “수년간 노조활동과 관련한 갈등으로 우울증 상태에 있었고, 사건 발생 1주 전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해왔다. 그러나 이번 산재 인정으로 인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셈이다. 유시영 대표이사의 재판 구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사의 산재 인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 열사를 죽게 한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 대해서 법원은 더 심각하게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들은 노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게 한 중대한 범죄자들이다.

* 이번주 일정 *

- 10/24(월)
 - 16:00 갑을 결의대회 (대전 샘머리공원)
- 10/25(화)
 - 콜텍 여의도 농성 1주년
 - 열사 양재동 농성
- 10/26(수)
 - 서울 질병판정위원회 농성 (25일 22시부터)
- 10/27(목)
 - 17:00 유성 결의대회 (음성 Y&T파워텍)
- 10/28(금)
 - 금속노조 임원 현장순회 (유성-링크-대한이연-보쉬-이래)
- 10/29(토)
 - 14:30 조선업 하청 대량해고 저지 금속 결의대회 (거제 아주공설운동장)